# 중국 북경北京 기행

權 相 穆
주간

▲ 근기요산회원이 정기총회를 열기 위해 서울 종묘 옆 돌담길로 이동하고 있다.

▲ 낙산 성곽길 중앙공원에 오른 요산회원들

안동 예안의 계곡桂谷 · 구룡九龍 · 정산鼎山 세 부락이 한 향리로서 옛적부터 자별히 지내왔다. 이곳 출신으로 서울에 와 사는 사람들이 또래로 모여 1999년 1월에 ‘ 계룡정우향친목회桂龍鼎友鄕親睦會 ’라는 모임을 만들었다. 이후 국내 명승지를 관광하는 것을 즐기다가 해외 중국으로 나가보기 시작하여 2007년 4월에는 중국 산동성山東省 지역을 4박5일로 다녀오고, 지난 2010년 5월에는 상해上海와 소주蘇州 · 항주杭州 지역을 3박4일 유람하였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 세번째로, 2011년 4월 28일부터 5월 1일까지 3박4일 여정으로 중국의 서울 북경北京을 다녀왔다.

4월 28일 아침, 전야에 여행을 떠난다는 마음에 미리 들떠 밤잠을 설쳤으나, 일찍 서둘러 8시에 집을 나와 서울역에서 전철을 타고 인천공항에 도착하니 10시 40분이었다. 회원중 사정으로 못가는 사람을 제외하고 필자와 우병문禹柄文 · 우영창禹永昌 · 권무춘權武春 · 권상운權相云 등 5인이 집결하였다. 미리 예약해둔 ‘ 하나투어여행사 ’의 안내에 따라 여타 여행객 14인과 함께 19인 한 조가 되었다. 상당히 까다롭고 복잡한 출국 수속에 몸수색까지 마치고서야 비행기에 탑승하니 정오가 지나 있었다. ‘ 중국남방항공공사中國南方航空公司 ’의 179석짜리 비행기는 빈 자리가 없이 만석이었다. 12시 30분이 되어 비로소 이륙해 북경을 향발向發하였다.

고도의 상공에 구름낀 날씨라서 바깥은 보이지 않고 고요히 앉아 명상에 잠겼다. 북경은 중국의 수도로서 14억 인구의 정치 · 경제 · 문화 및 관광의 중심이다. 동방의 색채가 뚜렷한 고대문화가 유구하여 3천년 도시건설의 역사와 8백년 도읍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다. 전후 24인의 황제가 570여년을 재위해온 곳으로서 세계 최대규모의 인류문화유산이 산적해 있는 대도시이다. 여행사와 패키지로 약정된 관람지는 천안문天安門광장 · 자금성紫禁城 · 만리장성萬里長城 · 천단天壇공원 · 왕부정王府井거리 · 이화원 和園 · 용경협龍慶峽 등이었다. 한 시간 50분이 지나 중국 시간으로 12시 25분에 북경의 국제공항에 착륙했다.

입국수속을 거쳐 공항을 나서니 하나투어여행사의 깃발을 든 여가이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가 반가이 맞아주었다. 가이드는 연변延邊 출신 한족韓族 3세로서 30대 부인 진경화秦京華였다. 그리고 하나투어의 전속 ‘ 금룡객차金龍客車 ’ 21인승 버스가 대기하고 있다 일행을 태웠다. 중국인 운전기사가 수인사를 한 다음 차를 움직여 오후 3시 쯤 천안문광장을 향해 떠났다.

### · 천안문天安門

천안문광장에 막상 들어서 보니 형용할 수 없이 크고 넓었다. 1만3천여 평으로 세계 최대라 한다. 광장에는 중공中共의 오성홍기五星紅旗가 펄럭이고 단문端門의 정면에 있는 오문午門의 거대한 건물 담벽 중앙에 모택동毛澤東의 대형 영정影幀이 붙어 있었다. 그 왼편에 ‘ 중화인민공화국만세中華人民共和國萬歲 ’, 오른편에 ‘ 세계인민대단결만세世界人民大團結萬歲 ’라 쓴 간판이 걸려 있었다. 그리고 그 반대편으로 먼 곳에 있는 인민대회당人民大會堂에는 소문孫文의 큰 영정도 붙어 있었다. 6 · 25전란 때 청소년기를 보낸 우리로서는 당시 중공군中共軍이 인해전술人海戰術로 뒤늦게 참전하여 결국 한반도의 반영구적 분단을 고착시켰던 일을 생각하며 착잡한 감회가 들지 않을 수 없었다.

광장의 동쪽에는 중국역사박물관中國歷史博物館과 중국혁명박물관中國革命博物館이 있고 서쪽에는 중국의 전국 인민대표 1만여명이 한꺼번에 모여 회의를 할 수 있게 지었다는 인민대회당이 웅장한 자태를 보이고 있었다. 남쪽에 있는 모택동기념관毛澤東記念館에는 그 시신이 안치되어 있다는데 이를 보기 위한 참배객이 줄을 지어 기다리고 있었다.

### · 자금성紫禁城

궁녀를 선발했다던 곳이 있는 오문午門을 지나 자금성紫禁城을 향했다. 자금성 안에 있는 여러 고궁은 북경시의 도심에 위치하여 명청 시대 황제가 정사를 보며 거주하던 곳인 황궁皇宮으로서 세계적으로 현존의 규모가 가장 크고 완전하게 보존이 된 고건축이라 하고 있다. 자금성이 시작되는 중화전中和殿을 지나 태화문太和門을 통해 태화전太和殿으로 들어갔다. 태화전은 명의 영락永樂 4년, 1406년에 지은 황궁으로 지붕 네 곳에 권력을 상징하는 짐승 열한 마리와 용 하나를 만들어 세웠으며 모두 24인의 황제가 이곳에서 즉위하였다 한다. 태화전을 지나니 3년마다 과거科擧를 보이던 보화전保和殿이 있고 다시 한 문을 지나니 황제의 침전寢殿 건청궁乾淸宮이 있었다. 다음 황후의 거처인 교태전交泰殿에서는 청말淸末의 서태후西太后가 생일 잔치 등의 연회를 자주 베풀었다 한다. 황후의 침전 곤녕궁坤寧宮을 지나니 갖가지 짐승 모양을 양각陽刻한 석대石臺에 정자가 우뚝 솟아 있었다. 어경정御景亭인데 황제가 올라가 곤명호昆明湖에 뜨는 달을 구경하던 곳이라 한다. 그 밖에도 양심전養心殿 · 저수궁儲秀宮 · 어화원御花園 등 하도 많고 큰 전각들이라 이루 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였다.

자금성은 남에서 북으로 직선형태로 지었는데 그 거리가 8킬로, 20리에 달하고, 부지가 22만평에 달하며, 전당과 누각이 870간이다. 각궁전마다 그 현관이나 수십미터씩 되는 계단을 모두 잘 조각된 옥돌로 쌓았다. 그 문지방이 닳아 구리판을 만들어 덮어 보호하는 것을 보면 관람객 인파가 어느 정도인가를 짐작케 하였다. 자금성 주변에는 대형 향로 모양에 사람 키의 항아리를 군데군데 배치해 놓았는데 화재에 대비한 방화수통防火水桶이며, 물이 겨울에 얼면 밑에서 불을 지필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한 수통이 자금성 안에 모두 308개가 있으며 그 가운데 18개는 금으로 도금을 하였다는 것이었다. 궁궐 내부에는 ‘ 정대광명正大光明 · 항월승일恒月昇日 · 의시시순宜施時順 ’ 등의 글자를 크게 쓴 현판이 걸려 있고 ‘ 천심융감성만방신서당사용보무강天心隆鑒性萬方臣庶當思容保無疆 : 하늘의 마음은 사람의 성품을 거울같이 내려다보나니 만방의 신하된 무리 무궁토록 용납하여 보전할 것을 생각해야 마땅하리라, 조훈소수아후사자손상극흠승유영祖訓昭垂我後嗣子孫尙克欽承有永 : 조상의 가르침이 우리 뒤를 이은 자손에게 밝게 드리웠으니 바라건대 이를 공경하고 받들어 능히 영원토록 하리로다 ’ 하는 대련對聯이 어좌御座 옆에 걸려 있었다.

광활한 대지에 웅장히 건설된 자금성을 구경하면서 놀란 나머지 허기도 잊고 저녁 시간도 지나쳐버렸다. 가이드가 독촉을 하다 못해 짜증을 냈다. 할 수 없이 자금성을 나와 ‘ 왕부정王府亭 ’이라는 식당으로 이동하여 오리고기로 저녁 식사를 하고 다시 ‘ 천지보장天地寶藏 ’이라는 극장으로 옮겨가 서커스를 구경하였다. 오후 8시경인데 세계인종이 다 모인 듯 인산인해를 이룬 틈으로 헤집고 들어가 예약된 좌석을 찾는 것도 어려웠다. 그러나 휘황찬란한 무대에서 현란하게 펼쳐지는 갖가지 묘기는 중국이 아니고는 볼 수가 없는 것일 성싶었다. 자전거 한 대를 열두 사람이 타고 달리니 이를 눈으로 보지 않고서야 누가 믿겠는가. 그밖에 갖가지 희한한 기예는 모두가 불견가지不見可知일 터였다. 한동안 넋을 놓았다가 야심이 되어 숙소인 ‘ 북경은풍대사상무점北京銀楓戴斯商務店 ’이라는 호텔로 들어와 여장을 풀었다. 우리는 이 호텔에서 연 사흘밤을 유숙하게 되어 있었다.

### · 만리장성萬里長城

이틀째인 4월 29일 아침 6시에 기상하여 6시 30분에 호텔 식당에서 뷔페로 아침식사를 하고 7시 30분 출발하여 만리장성을 향했다. 만리장성은 북경의 북쪽 시계市界 안에 있다. 연산燕山산맥을 지나는 고속도로를 한참 달리는데 널따란 무변광야에 논은 보이지 않고 푸른 밀밭뿐이었다. 경지정리가 잘 되어 있었다. 도로와 나란히 철길이나 달리고 있는데 그 철로가 러시아 모스크바까지 연결되어 있다고 한다. 한 시간 쯤 달리자 지평에서 산세가 나타나고 이윽고 먼 산이 시야로 다가왔다. 팔달령八達嶺산성을 시작으로 수관장성水關長城 · 사마대司馬臺장성 · 거용관居庸關장성 등 크고 작은 산성을 지나자 드디어 만리장성의 외곽 입구가 나왔다. 그리고 이곳에서 길이 1천8백 미터의 케이블카를 타고 만리장성에 도착하였다.

이 장성은 서기전 221년에 진시황秦始皇이 중국을 통일한 후 북방 흉노족匈奴族의 침입에 대비하여 만든 건조물로 진秦 · 연燕 · 조趙 세 나라의 북변에 있던 장성을 연결하고 또 여러 구간을 증축하여 총연장이 무려 1만리에 달해 만리장성이라 부르게 되었다. 하북성河北省 산해관山海關에서 감숙성甘肅省의 가곡관嘉谷關까지 실제 길이는 1만2천6백80리이며 당시 부역에 동원된 자는 도중에 죽으면 성밑에 묻었다 한다. 그리고 지금 볼 수 있는 장성은 실은 명나라 때 축조한 것이라 하였다. 또한 높고 험준하게 쌓은 성채가 다 돌이 아니라 흙을 뭉쳐 모나게 잘라 구운 벽돌이라 하니 처음 듣는 소리였다. 그리고 이 장관의 만리장성 1만2천6백80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걸은 사람이 없다는 것이었다.

사람이 달에 갔을 때 지구에 있는 인류의 구조물 중 유일하게 보인 것이 이 만리장성이었다 한다. 중국인의 오랜 역사와 문화적 우수성을 과시하는 구조물로서 이 장성은 이미 유네스코의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이 되어 있다. 신의 작품으로나 가능했을 것같은 만리장성을 한 시간여 구경하고 나니 10시 반이 되었다. 다음 관광지 용경협을 향해 이동하였다.

### · 용경협龍慶峽

연경현延慶縣의 명승 용경협에 가까워지면서 주위의 경관이 바뀌어 아름다워졌다. 입구의 큰 바위에 ‘ 龍慶峽 ’의 대자를 새겨 놓았고 그 곁에 작은 글씨로 ‘ 강택민江澤民 ’의 이름이 붉게 새겨져 있었다. 협곡을 조금 오르니 엄청나게 큰 조형물의 황룡黃龍이 나타나 사람을 압도하였다. 매우 큰 머리에 그 꼬리는 하늘에 닿을 듯한데 길이가 260미터라 하였다. 우리는 용의 아가리에 난 입구를 통해 그 몸통인 굴 속으로 들어갔다. 굴속에 설치된 에스컬레이터를 오르고 계단을 걷기도 하는 한편 양쪽 벽면에 걸린 유명 화가들의 각종 그림을 구경하기도 하며 용의 꼬리 부분에 이르러 밖으로 나왔다. 거기에서 다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고개에 오

13면으로 계속